

임기영·윌랜드·김기훈... 선발투수 '이닝'에 성패 달렸다

KIA, 한화와 홈 3연전·KT 원정...마운드 운영 가늠자 부상 여파·실전경험 부족·제구 약점 극복해야 반전 계기

T 타이거즈 전망대

'이닝'이 2연패로 막을 연 KIA 타이거즈의 반전 카드가 된다. KIA는 지난 주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른 LG 트윈스와의 개막 시리즈에서 2연패를 당했다.

'에이스' 양현종이 6이닝 1실점 8K의 호투에도 0-2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제이콥 터너는 홈런 두 방을 맞는 등 5이닝 8실점(7자책점)으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올 시즌 KIA의 든든한 전력으로 평가됐던 타선이 무사 만루 무득점 등 두 경기에서 3점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면서 출발이 좋지 못했다.

KIA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주중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주말에는 수원으로 올라가 KT 위즈와 시즌 첫 맞대결을 벌인다.

새로운 한 주는 물론 앞으로의 KIA 행보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선발진의 '이닝'이다.

KIA는 26일 임기영을 시작으로 조 윌랜드-김기훈으로 선발진을 운영할 계획이다. 물음표가 가득한 세 선수의 첫 선발 출격이다.

임기영은 2017시즌 KIA 선발진의 한 축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어깨 부상 여파로 부침의 시간을 보냈다. 올 시즌 준비 과정도 수월하지는 않았다. 직구

구위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고 캠프를 시작했고, 캠프 연습경기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선발 후보'였던 임기영은 한승혁의 부상 속 점차 공의 위력을 더해가면서 선발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다.

선발 역할은 맡았지만 지난 시즌의 잔상이 남아 있는 만큼 임기영은 첫 출격에서 2017시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조 윌랜드도 예측 불허의 선발이다. 윌랜드는 지난 13일 SK와의 시범경기를 통해 한국에서의 첫 등판을 소화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난 뒤 첫아이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산 휴가'를 다녀오면서 실전 이닝이 부족했다.

'감'잡기가 우선 숙제이고, 낯선 리그에서의 '적응'도 중요하다.

터너의 첫 등판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4일 등판에서 터너는 최고 152km의 직구를 뿌리며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터너는 강약 조절 실패와 세밀함 부족으로 LG 타자들에게 못매를 맞았다.

선발 타이틀을 차지한 김기훈도 계산이 서지 않는 미완의 대기다.

김기훈은 선발 등판에 앞서 지난 24일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나와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미리 프로 무대를 경험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선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임기영



윌랜드



김기훈

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고질적인 제구 문제가 다시 노출됐다. 김기훈이 1.1이닝을 채우는 데 필요한 공은 43개나 됐다. 4개의 볼넷도 기록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

제구 약점이 눈에 띄었지만 다행이 김기훈표 묵

직한 직구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변수 많은 선발진이 잇달아 출격하게 되는 만큼 KIA는 이들의 '이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임기영이 한 주를 여는 역할을 맡은 만큼 불펜진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이닝

을 풀어가줘야 한다. 세 선발의 이닝은 이들의 등판 경기 결과는 물론 새로운 한 주 전체적인 마운드의 흐름까지 좌우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유망주들 뜨거운 경쟁

오늘 퓨처스 리그 개막... 2개 리그로 팀간 14차전 총 530경기 KIA, 홈에서 삼성과 개막전...야수·투수진 세대교체 관전포인트

KIA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도 2019시즌에 돌입한다.

KIA가 26일 오후 1시 합평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퓨처스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퓨처스리그는 남부(KIA, 상무, 롯데, NC, KT, 삼성)와 북부(한화, 고양 히어로즈, SK, LG, 두산) 2개 리그로 나눠 진행되며 팀 간 14차전, 인터리그 팀간 6차전씩 대결을 갖는다.

이에 따라 북부리그는 팀당 92경기, 남부리그는 팀당 100경기씩 총 530경기를 펼치게 된다.

KIA는 '마운드 경쟁', '야수 세대교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2019시즌을 보내게 된다. 무엇보다 마운드의 경쟁이 흥미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KIA는 지난 23일 KBO리그 개막전을 갖고 'V12'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 결과는 개막 2연전 2연패지만, 패배 속에서도 '젊은 마운드'의 성장세는 위로가 됐다.

하준영·이준영 좌완 듀오의 활약 속, 고영창도 첫 개막전 등판 영예를 안았다. 황인준, 이민우

등 신예 선수들도 24일 출격하면서 마운드의 경쟁에 불이 붙었다.

퓨처스리그에서도 마운드 경쟁이 뜨겁다.

개막 엔트리에서 탈락한 김세현, 유승철, 홍건희 등이 호시탐탐 1군 기회를 노린다. 좌완 박경태와 임기준의 어필 무대도 펼쳐진다. 특히 어깨 부상으로 오키나와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임기준은 지난 21일 롯데와의 연습경기에서 143km까지 스피드를 끌어올리며 '어게인 2018'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재활군에서도 마운드 복귀를 향한 움직임이 뜨겁다. 위 용종 제거 수술로 한숨을 골랐던 사이드암 박준표가 이번 주 피칭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른쪽 내전근 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귀국했던 한승혁도 토스 훈련을 하며 공을 만지고 있다.

한편 KIA는 퓨처스리그 개막전에 맞춰 챌린저스 필드에서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 오후 12시부터 유승철, 박정수, 신범수, 오선우가 사인회에 참가해 팬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불방망이' 강정호

MLB 시범경기 7호 홈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강정호(32·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범경기 7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강정호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러스타 에드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시범경기에서 2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홈런 1타점으로 활약했다.

그는 뉴욕 양키스 애런 저지를 제치고 시범경기 홈런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아울러 박병호(키움)가 2017년 미네소타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한국 선수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최다 홈런(6개) 기록도 갈아치웠다.

시범경기타율은 0.231에서 0.238(42타수 10안타)로 소폭 상승했다.

강정호는 1회 상대 팀 선발 투수 앤드루 캐시너를 상대로 홈런을 쳤다. 볼카운트 1볼-1스트라이크에서 좌측 담장을 넘겼다.

이날 양 팀은 1-1로 비겼는데, 강정호의 홈런은 피츠버그가 기록한 유일한 득점이 됐다.

/연합뉴스



고진영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화일드 파이어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뒤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메이징' 고진영

LPGA 파운더스컵 4R 4타자 역전승...박성현 14·박인비 34위

고진영(24)이 4타자를 뒤집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투어 신인상 수상자 고진영은 25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화일드파이어 골프클럽(파72·665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기록,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우승했다.

지난해 2월 호주오픈에서 우승한 고진영은 약 13개월 만에 투어 통산 3승째를 따냈다. 우승 상금은 22만5000달러(약 2억5000만원)다.

투어 데뷔 이전인 2017년 10월 국내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한 고진영은 3년 연속 해마다 1승씩 거두는 꾸준한

모습을 이어갔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4위였던 고진영은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몰아치는 맹타를 휘둘러 2위 그룹을 한타차로 따돌리고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전반에 3타를 줄이며 호시탐탐 선두권 도약을 노린 고진영은 14번부터 16번 홀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 단독 1위에 올랐다. 14번 홀(파3)에서 티샷을 홀 약 2m 거리로 보내 한 타를 줄였고, 15번 홀(파5)에서는 약 6m 거리에서 이글 기회까지 잡았다.

고진영의 뒤를 끝까지 추격한 것은 류위(중국)였다. 3라운드까지 단독 1위였던 류위는 15번 홀 그린

밖에서 퍼터로 굴린 공을 그대로 홀 안으로 넣으며 고진영과 함께 공동 선두가 됐다.

그러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에 미치지 못했고, 그린 앞에서 띄워 보낸 세 번째 샷은 너무 강해 홀 약 5m 지점에 놓였다.

이 홀에서 반드시 파를 기록해야 연장이 갈 수 있었던 류위의 파 파트는 오른쪽 옆으로 살짝 비껴나가 연장전을 대비해 몸을 풀던 고진영의 우승이 확정됐다.

류위와 함께 제시가 코르타, 넬리 코르타 자매(이상 미국),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등 4명이 고진영에게 1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2015년과 2016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김효주와 김세영이 나란히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지난해 우승자 박인비는 11언더파 277타, 공동 34위다.

3라운드까지 고진영과 함께 공동 4위였던 박성현은 타수를 줄이지 못해 15언더파 273타로 공동 1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